"우주개발은 중요 국가전략"

김도연 장관 "2055년까지 달에 우주선 보낼 것"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우주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새겨지고 있다"며 "한국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8'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1992년에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착수, 시작이 다소 늦었지만 그동안 많은 진보를 이룩해 왔다"며 "우주 다목적 위성 1, 2호를 발사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됐고 지난달에는 성공적으로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자랑거리인 이소연 박사가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나로스페이스센터'가 한반도 남부에 자리잡게 되고 100㎏의 적재 위성을 쏘아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이 위성을 자체 발사하는 첫 케이스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 같은 기술을 토대로 달 표면에 2055년까지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라며 "우주기술이 전체 인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역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이제 사퇴하시지" 완주 고집에 美언론들 회의적 반응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역전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완주'를 고집하고 나서자 미 언론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 방송들은 지난달 22일 힐러리가 펜실베이니아 경선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그에게 '다이 하드(die hard)'라는 표현을 쓰며 그의 생명력과 정치내공을 평가했던 언론들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경선을 이후로 비우호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MSMBC는 7일 저녁 방송에서 '클린던(Clindone?)'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클린턴(Clinton) 힐러리의 영어철자에 변형을 가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힐러리가 '깨끗하게 당했다(clean done)'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CNN의 자막도 만만치 않다. '아직도 (경선에) 남아있어요' 정도로 해석되는 'Still in it'이다. 힐러리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I'm in to win(난 승리하기 위해 뛰어들었어요)'라는 말을 묘하게 연상시키는 'in'의 사용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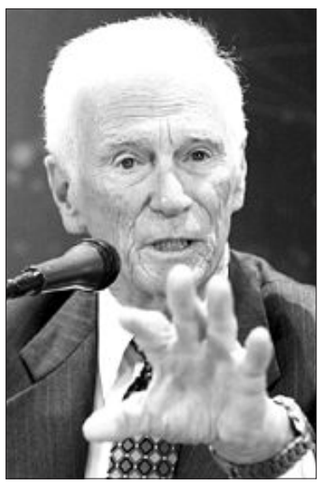
ABC방송은 'uphill battle'(매우 힘든 싸움), CBS방송은 "victory slipping away(승리는 떠나 버리고)"라는 자막을 곁들임으로써 힐러리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신문과 방송할 것없이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 앞에 따라다니는 '사실상의(presumptive)'가 오바마에게도 붙기 시작하는 등 힐러리가 대선레이스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6일 노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압승하고 인디애나주에서는 근소하게 패함으로써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 2천25명에 200명 이내로 다가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인디애나주 경선 개표 결과, 최소 94명의 대의원을 추가해 확보한 총 대의원 수가 1천840.5명으로 '매직넘버' 2천25명에서 184.5명 모자라는 것으로 AP통신은 집계했다. /연합뉴스

아폴로 17호 선장 "한국 달 향한 인류 행동 동참"



달에 다녀온 마지막 우주인인 미국의 아폴로 17호 선장 유진 서난<사진>은 8일 "한국은 우주에 대한 열망으로 달을 향한 인류의 행동에 동참하게 됐으며,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8'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꿈과 노력이 우리를 다시 달로, 우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난은 이어 "선조들이 오래 전에 별나라에 가는 꿈을 꿨고 이 꿈이 이소연 박사와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도록 했다"며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올바른 길로 가는 큰 발걸음을 뗀 것이며 장담컨대 이소연 박사가 마지막 우주인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인류의 업적은 처음에 땅에 머물렀으나 이후 바다로 눈을 돌렸고 2명의 몽상가 라이트 형제의 의지로 날개가 달린 뒤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 별나라로 가게 됐다는 것"이라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달을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어떻게 달나라, 우주여행을 시작했으며,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싶다"며 아폴로 17호, 지구의 모습, 달 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회상했다.

서난은 지구 밖에서 본 일출·일몰의 모습, 지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게 되는 순간의 감동을 전하며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 우주 존재한다는 것, 우주가 어떤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 로 인해 사망자만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양곤의 변두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구호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에 규모 6.7 강진

일본 도쿄를 포함하는 열도 동부 지역에 8일 오전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45분께 도쿄 동쪽 태평양 해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 도쿄 북부지역을 강타했다고 말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도쿄 북동부 일부 지역이 지진의 범위에 들었다면서, 도쿄 중심부 일부 건물에 떨림이 있었으나 즉각적인 피해보고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으로 먼바다에서 다소 파고의 변화는 있었지만 쓰나미에 따른 피해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년 청소년 4천명 교류

중·일 교류·협력 공동성명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8일 앞으로 4년간 해마다 4천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언론 발표문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전략적 호혜관계'의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담긴 뜻을 70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청소년 교류를 향후 4년간 4천명 규모로 실시하고 이후에도 교류를 장기적으로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001년 1월 중단된 양국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한편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美, 유엔서 한국 국보법 개정 공개 권고

정례 인권 검토 회의서

미국이 7일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그 같이 권고했다.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보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그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보법 개정은 미국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국보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미얀마 사이클론 사망자 10만명 넘어

상륙지 8만명 몰사… 마을 수십개 통째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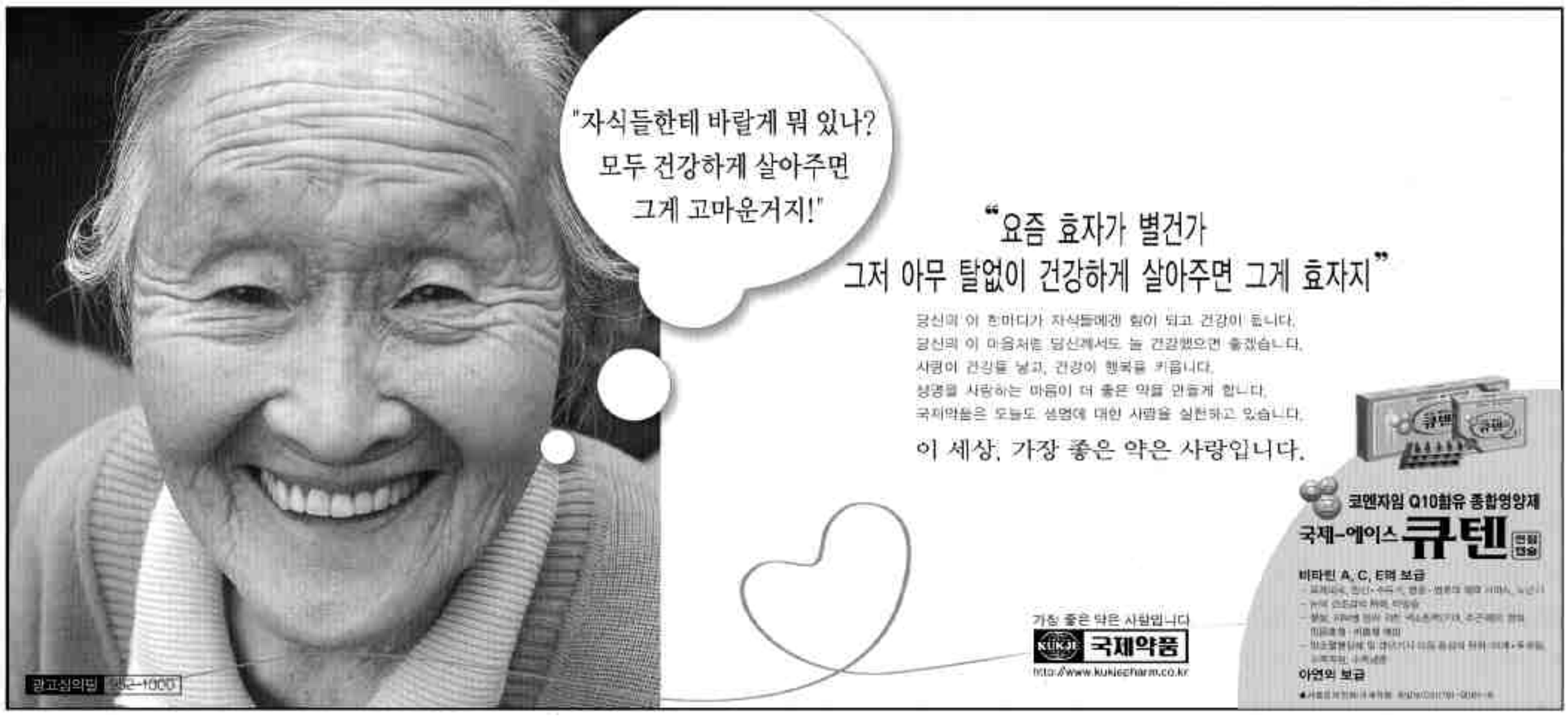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의 미얀마 상륙지인 라부타 읍내 주변의 수십개 마을이 통째 사라졌으며 8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몰사했다고 AFP통신이 지방관리를 인용, 8일 보도했다.

라부타 읍내의 구청장인 틴 윈은 읍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63개 마을 가운데 수십개 마을이 통째 파도와 홍수에 휩쓸렸다며 "지금까지 이곳에서 숨진 주민 수는 8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라부타는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으로부터 서남쪽으로 160㎞ 떨어져 있으며 이라와디 삼각주의 서쪽 초입에 위치한 외딴 지역이다.

나르기스는 2일밤 라부타에 상륙, 인구 밀집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를 관통한 뒤 양곤을 거쳐 빠져나갔다.

앞서 마웅 마웅 스웨 미얀마 구호복지부 장관은 "희생자 대부분은 폭풍우 자체가 아니라 높은 파도 때문이었다"면서 "높이 3.5m의 파도가 해안가 마을을 덮쳤으며 주민들은 달아날 길이 없었다"고 사이클론 강타 당시를 설명했다.

한편 샤리 빌라로사 미얀마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에서 숨진 사람이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 지역의 건물 95% 가량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2만2천여명, 실종자 수는 4만1천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었다. /연합뉴스